

주련(柱聯) 성찰이라는 시간의 흔적을 적다



범어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 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개의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함경)



주련, 붙자라면 누구나 익숙해 있어 쉽게 획 지나가버리는 단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적한 산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절집을 만날 수 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마루나 기둥을 보다보면 그곳에 붙어 있는 글에 눈길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주련(柱聯)'이다.

삼보불교카렌다 김형두 사장은 삶이 녹아있는 주련의 세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항상 불수 있도록 달력으로 제작 보급 하고 있다.

"산사에 있는 오래된 절의 주련은 부처님 말씀이나 대선사님들의 계승으로 주옥처럼 빛나는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저희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현대인들이 주련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또한 당대 서예가들의 명필 글씨를 그대로 옮겨 주련의 의미와 감동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사장은 우연히 산사에 있는 사찰에서 스님께 주련에 대한 글귀 설명을 듣게 되었다. 주련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과 역대 조사님들의 계승을 항상 집안에서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 달력으로 만들기 로 결심한 것이다.

이후 직접 5년여 동안 주련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풍경과 어우러진 사진을 마련하고자 밤새워 작업한 적이 셀수도 없었다. 한껏 한껏 정성스럽게 모은 사진들이 지금 삼보불교카렌다의 "사찰과 주련"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주련에 대한 해설은 경원사 만우 스님께 부탁하여 계승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번역하여 마음에 손쉽게 새기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현재 한국불교사건협회 회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사장은 최고급의 종이로 최고의 작품(달력)을 보급하는데 더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절집의 아름다운 풍경과 큰 신심으로 담아낸 사진을 함께 실어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있다.

삼보불교카렌다 031)731-9905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과거 수십년 동안 수행하여 증득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 습관을 단계로 닦아 종자를 정화할 수 있도록 서술한 책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이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무아선원 선원장 해원스님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의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됐다. 출가 후 수계 스승이 하는 것을 옆 눈으로 구병사식을 익히고, 법화경 독송 중 일어난 법열(法悅)로 중생의 병을 다스리기도 했다.

스님은 또 화엄성중 철야21일 용맹정진 기도 중 화엄성중들을 조복 받았고, 2008년 어느 가을에는 낙엽 밟는 소리가 부처소리로 들리면서 부처를 보기도 했다.

또한 생활가운데 간화선 수행방법을 증득하신 어느 스승이 도를 얻고 나서 미혹하게 중생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자만하면 미혹하게 중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스승을 찾지 못



무아선원장 해원 스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관적 종자를 소멸해야 하기에 한 생각 일어날 때 습관적 종자를 소멸하는 방법을 단계로 서술하였고,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수행하면 증득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삶에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으면 무엇을 얻은 것으로 알고 머무는 것이 병(病)인 줄 모르면, 미혹하여 과거로 돌아간다. 이러한 병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과거 종자를 정화 할 수 있도록 수행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해원스님은 이 책에 대하여 "수 십년 동안 증득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 습관을 단계로 닦아 종자를 정화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돈을,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을,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수행자이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을 한 생각 일어나 중생으로부터 부처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근기에 따라 사람을 가르친다면, 고뇌하는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고 서재 가까이 두고 수시로 참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스님은 1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을 중심으로 선불교를 일상생활 가운데 단계로 수행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과거 습관을 단계로 닦아 종자를 정화해야

하고 고뇌하다가 대혜종고 선사의 서장을 통하여 도를 얻고 나서 공부방법을 아는 순간 법열이 열리고 도인이 되고 나서 지키지 못하고 미혹하게 되는 이유를 알고 지금도 일상생활가운데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해원스님은 출가 전부터 겪어온 많은 갈등과 고난 속에서 도(道)는 멀리 있지 않고, 일상생활 모두가 도(道)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큰스님들의 많은 법문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교리적 논리에만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깨달음에 들기 위한 방안을 묶어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을 펴낸 것이다.

이 책은 1700년 전 선(禪) 불교를 일상생활 가운데 단계로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유식 30송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면서 수행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수행을 위한 5단계인 환란기 안정기 관찰기 깨침기 수습기를 설정했다. 생각이 일어나 차별하면 습관 때문에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본 마음은 단계가 없고 보고 듣는 대로 알면 되지만 생각 일어나 분별하면 습관때문에 단계가 필요하다.



무아선원 (031)721-2148

고급화를 넘어 대중화로 발전하는 위패

선망 부모와 조상들을 절에 영구위패로 모시면 스님의 영복을 영가들이 듣고 극락왕생과 해탈의 도를 얻도록 하기위한 자신들의 마지막 효이며 후손에게 복 짓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위패가 내려왔으나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위패가 파손되거나 전해지지 못해 그 풍습이 변질되어버린 안타까움이 많다. 현대에서

는 전통제례를 보존하고 있는 종친회나 사찰의 제례행사에서 근근히 명맥이 이어져 내려져 오고있는 형편이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소재가 다양해짐으로서 기존의 나무에서 크리스탈, 수지,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이 없어 완성도가 조잡하기 이룰때 그치지않아 사찰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제한과 고관점이 컸고, 궁여지책으로 종이로 접은 지방을 위패에 덧씌웠다. 하지만 실내 범당에 오랜기간 모시고 있는 중에서도 습기와 실내환경으로 인한 풍화로 종이로 제작된 영가단과 지방이 습기를 먹어 울거나 지저분해지는 사태가 벌어져 항상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대양에서 출시한 '영구황금위패'는 밤나무에 울칠을 하고 건조시키고 사포로 표면가공후 다시 칠하는 공법을 7차례 걸쳐 각종 습기와 풍화에 색이 바래거나 목재가 뒤틀리는 문제를 해결했고 순금으로 부분개금하여 외관상으로도 고급스러움을 보여주었으며 주문하면 회사자체에서 명단대로 서체를 조각 마무리까지 해주는 제품이 출시되어 많은 사찰과 신도들의 만족도를 채워주고 있다.

위패는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 공간의 마련이 여의치않는 사찰에서는 벽면에 신위를 부착한 영가단이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종이로 만든 지방이 그라하듯 벽면을 채우고 있는 영가단은 습기의 영향을 받는 현상이 더더욱

뚜렷하여 깔끔한 벽면에 습기에 울어 주글 주글한 모양이 범당의 내관을 손상한다는 지적이 많이 오고가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영가단은 화제시 큰 손상이 되어 명단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누가 등록을 하고 올려놓았는지 찾을 길이 막막하다. 이러한 종이 영가단의 단점이 보완된 제품으로 흑옥으로 제작된 흑옥영가단이 선보여지고 있으며, 흑옥으로 제작된 흑옥영가단은 교체와 습기 흑옥으로 만들어 습기나 화재에도 모양의 손상이 보

사찰위패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제례에서도 위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존성이 뛰어나면서 그윽한 흑빛으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제품으로 많은 호응과 임소문이 여기저기 들린다.

조상을 기리고 혼백이 찾아들어 안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의미 또한 갖고 있는데, 사찰에서 그랬듯이 집안에서 모실수 있는 위패 또한 사정이 다를바가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 외관상 많은 외면을 받아왔던 사실이다. 기존의 시장 에 나와있는 위패는 그 형태와 느낌에서도 일반가정에서 모시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여 더더욱 조상과 후손들의 거리를 멀리하게 되는 뜻하지않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점에서 가정제례용 흑단위패는 하

단부분을 흑단나무로 만들고 상단부분을 오석으로 제작 가정에서 쓰기 무리없게 만든 제품이 되었다. 죽은사람이 거거한 곳이라는 우중충한 이미지에서 후손들과 함께 어울려 머물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인 것이다. 특히 제사때마다 '현고학생부군신위'나 관직이나 호를 기억하지 못해 찾고 해매는 일이 없어졌으며, 제작된 디자인도 여타 디자인과 달리 모던하고 심플하여 어떠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정제례용 흑옥위패

(주)대양아트 02)966-9650 www.dya.xo.st



황금위패 (디자인특허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을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 - 삼환양초

•합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구성 : 스탠드스 발침 1개 / 크리스탈 발침 7개 / PC 발침양초 7개 / PC 비닐양초 7개 (여분증정)

강화사자발악양초

한뎡발악양초

① 약복초 90cm	② 약복초 연등 환기등	③ 약복초 돈타레	④ 약복초 1호	⑤ 약복초 2호	⑥ 약복초 3호	⑦ 약복초 4호	⑧ 약복초 5호	⑨ 약복초 6호	⑩ 약복초 7호	⑪ 약복초 8호	⑫ 약복초 9호	⑬ 약복초 10호	⑭ 약복초 11호	⑮ 약복초 12호	⑯ 약복초 13호	⑰ 약복초 14호	⑱ 약복초 15호
7.0 f × 34cm	7.0 f × 34cm	5.6 f × 27cm	5.9 f × 18cm	5.9 f × 18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4.7 f × 10cm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